경찰, 음주·무면허 운전은 아냐  
  
  
  
  
  
  
  
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@busan.com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차량이 교회 승합차를 치어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.16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분께 전남 보성군 득량면의 한 교차로에서 사회복무요원 A(23) 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교회 승합차 옆면을 들이받았다.경찰은 해당 신호위반을 한 A 씨로 인해 정상 신호를 받고 교차로를 지나던 승합차가 이와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. 당시 사고로 예배를 마치고 승합차에 탑승해 집으로 향하던 80대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. 또 사고를 낸 A 씨를 포함해 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해있던 4명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.A 씨는 당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. 이에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.